



국민이 지킨 역사
국민이 이끌 나라

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

보다 나은 정부



전주기상지청

보도자료 Press Release

배포일시	2019. 3. 25.(월) 17:00 (총 2매)		보도시점	즉 시	
담당부서	기후서비스과	담당자	과장 임갑곤 주무관 유재영	전화번호	063-249-3233

『태양, 지구 그리고 날씨를 보다』 사진전 개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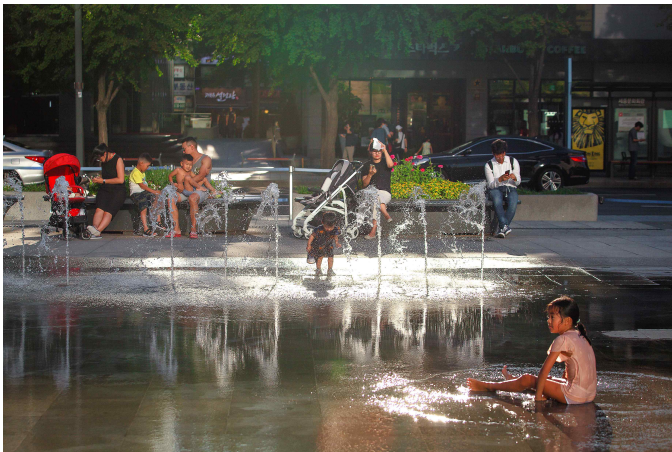
- 전주기상지청, 전라북도 과학교육원에서 기상기후사진전 개최-

- 전주기상지청(지청장 정덕환)은 과학의달(4월)을 맞이하여 과학에 관심있는 학생들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『태양, 지구 그리고 날씨를 보다』라는 주제로 오는 4월 2일(화)부터 4월 28일(일) 까지 27일간 전라북도 과학교육원(익산)에서 개최한다.
- 이번 사진전은 2019년 기상기후사진 공모전 수상작품을 포함한 50여점이 전시되며, 과학의 달(4월)을 맞이하여 전라북도 과학교육원 과학의 달 행사와 함께 진행된다.
- 주요 전시작으로는 2019년 기상기후사진 공모전 대상인 '소나기' 와 금상 '폭염 탈출' 은상 'A village where Christmas falls ' 동상 '낮게 깔린 미세먼지' '용담댐의 물안개' 등 다양한 기상사진이 전시된다.
- 이번 전시회를 통해 학생들과 일반인 등 방문객들에게 기상재해 및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과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, 기상기후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여 기상과학 문화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기후변화 이해확산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.



- 소나기 -

가야산 정상에서 먹구름 사이로 소나기가 내리는 장면 모습이다



- 폭염 탈출 -

지구의 이상기온 영향으로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몇 주간 지속된 2018년 여름의 무더위는 우리나라 전체를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였다. 폭염이 극심했던 2018년 8월 초 서울 광화문에 놀러 간 우리 아이들이 극심한 폭염 속에서 물놀이를 하면서도 지치고 힘들어 하고 있다.



- A village where Christmas falls -

한남동의 한 마을을 찾아가 보았다. 역시 예상한 대로, 그곳은 마치 동화 속 세계처럼 되어있었고 나는 동심으로 돌아가 그 풍경을 담았다. 그때가 12월, 이 마을에 크리스마스가 찾아온다면 이런 느낌의 판타지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의 나래를 펼쳐본다.